

## 심미를 위한 전치부 치관확장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치주과<sup>1</sup>,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치주과<sup>2</sup>  
최희선<sup>1\*</sup>, 방은경<sup>1,2</sup>

### Introduction

심미적인 미소에 있어서 상순선과 치아 그리고 치은의 조화가 중요하다. 특히 상악 전치부는 미소를 지을 때 직접적인 노출이 동반되어, 전치부의 이상적인 치은 변연과 적절한 양의 치은노출은 심미적 미소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치은 구조가 항상 적절한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며, 비심미적인 형태의 치은 구조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 중 전치부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치부의 불규칙한 치은의 높이 혹은 과도한 치은의 노출이 있다.

먼저 전치부의 불규칙한 치은의 높이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교정치료 인해 발생한 치아의 삼차원적 이동이 국소적으로 치은의 형태를 변화시킨다. 과도한 치은 노출의 경우 치아의 수동적 맹출이 미흡할 때, 흔히 상악 전치부에서 짧은 치관과 gummy smile로 나타난다. 환자는 심미적인 개선을 원하며, 이는 치관연장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Coslet et al.은 변경된 수동적 맹출(altered passive eruption)을 각화치은의 양과 치조정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치료법을 제안했다.

본 증례는 상악 전치부에서 불규칙한 치은 변연(uneven gingival line)과 과도한 치은노출(gummy smile)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치료에 있어 각각의 임상검사의 지표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식의 선택과 이에 따른 치료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Case

#### 1. 불규칙한 치은의 높이

Case 1. 59세 남환으로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불규칙한 치은변연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임상검사서 충분한 부착치은을 보이며, 국소적 부위의 불규칙한 치은변연을 보이므로 판막거상 없이 해당부위에만 gingivectomy를 시행하였다.

Case 2. 40세 여환으로 교정치료 후 상악 전치부의 불규칙한 치은 변연 수정을 주소로 의뢰되었다. 치아 이동으로 인한 불규칙한 치은변연 조정을 위해 surgical stent를 제작하여 전치부의 이상적인 비율을 구현하였다. 상악 전치부의 전반적 치은변연 수정을 위하여 판막을 거상하고 골삭제를 시행한 뒤 판막을 봉합해주었다.

#### 2. 변경된 수동적 맹출(Altered passive eruption)

Case 3. 23세 여환으로 과도한 치은 노출로 협진 의뢰 되었다. 임상검사서 2mm 미만의 부착 치은이 관찰되었고, flap open시 2mm 이상의 충분한 백악법랑질 경계부와 치조정 사이의 거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골삭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골삭제를 동반하지 않은 판막하방이동수술(apically positioned flap)을 시행하였다. (coslet 분류 : Type II, subgroupB)

Case 4. 44세 여환으로 상악전치부의 gummy smile을 주소로 보철과에서 협진의뢰되었다. 임상검사서 충분한 양의 부착치은이 관찰되었으며, flap open시 2mm 미만의 백악법랑질경계부와 치조정사이의 거리가 관찰되었다. 백악법랑질경계부와 치조정사이의 충분한 생물학적폭경의 확보를 위해 골삭제를 동반한 판막하방이동수술(apically positioned flap)을 시행하였다. (coslet 분류 : Type I, subgroupB)

### Discussion & Conclusion

심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치부의 치은결함으로 인한 심미성 개선을 호소하는 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환자의 주소에 대해 임상지표 평가를 통한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야 한다. 불규칙한 치은변연은 특정치아의 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할 범위를 판단하여 국소적 치은절제술이나 판막거상을 통한 전반적인 치은변연의 수정이 필요하다. 과도한 치은노출의 경우 변경된 수동적 맹출(altered passive eruption)을 시행한다. 이때 환자의 부착치은의 형태에 따라 판막거상 여부를, 생물학적폭경에 따라 골삭제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막을 거상하여, 백악법랑 경계부와 치조정 사이의 거리를 판단한 뒤, 2mm 미만일 경우 생물학적 폭경의 확보를 위해 골 성형을 동반한 치주판막술이 추천된다.